



재해개요

- 2021. 7. 2.(금) 10:20경 경북 □□시 소재 ○○○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재자가 취수탑 수문 교체 작업 중 수문 임시 고정을 위해 수중에서 이동하던 중 개방되어있던 인접 수문 사이에 끼여 질식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발생 원인

- 수문 개폐 현황 등 사전 조사 미흡
 - 취수탑 수문이 개방되어 수압 및 물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이 일부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



재해예방 대책

- 설비(취수탑)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
 - 잠수작업 시 잠수 작업자가 수압 등에 의하여 몸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설비의 수문을 모두 닫고 설비의 운전 정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